

AUDIO PHYSIC STEP 4 SPEAKER SYSTEM W2,170,000

**군더더기 없는 소리  
해상력도 수준급**

최근에 들었던 가장 인상적인 스피커를 꼽으라면 단연 오이로딘의 펠드 타입형이라고 할 수 있다. 쇼트 혼으로 착색을 없애는 대신 고성능의 드라이버를 장착한 점이나 군더더기의 소리가 일철 없는 우퍼의 성능에, 왜 이 스피커가 독일 빈티지 스피커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 스피커를 오디오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악기와 같은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견해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악기와 같은 존재로 보고 싶는데, 왜냐하면 이 스피커는 연주홀의 분위기라든가 풍부한 홀의 울림까지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풍성한 울림을 이끌어내는 것은 사용자의 몫이 될 것이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화려한 명성의 오이로딘을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생각이다. 필자는 분명 독일 기기 예찬론자는 아니지만, 독일 기기들이 재평가될 이유는 충분히 있다.

본기도 이런 독일적인 특성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고 있다.

15cm 구경의 우퍼와 32cm의 높이의 인클로저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만의 스케일만 들려준다. '어때, 놀랐지?' 하는 기본적인 조크마저도 없다.

전체적인 소리의 성향은 기름기가 빠진 담백함과 불필요한 부풀림이 배제된 인상이다. 인클로저는 약간 경사진 반 류트형이며, 만들새가 견고하여 좋은 점수를 줄 만하다. 제작자는 천정의 높이가 3.5m쯤 되고 15m의 크기를 가진 마루가 깔린 독일식의 방을 염두에 두고 본기를 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따라서 바닥의 마루 반사운동을 고려하면 우리의 주거 환경보다 음향적으로 득이 많을 것이며 이런 점은 사용자가 분명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시청에는 사이러스 PRE-Xvs 프리앰프와 스마트 파워 플러스 파워앰프, 메리디언 508 CD플레이어가 동원되었다. 먼저 애청곡인 아그네스 발차가 부른 '기차는 떠나가고'에서는 매우 섬세하고 군더더기 없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아그네스 발차의 목소리에서는 여유로움이 묻어 나오고 소리의 분자들이 공간에 흩어진 다. 유일하게 실패한 것은 기차가 떠나는 카테리니—그 작은 마을에는 필자의 가장 친한 친구가

살고 있다—의 아련함까지는 전하지 못하는 점인데, 좀 지나친 요구일까?

이어서 들은 볼티모어 심포니가 연주한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에서는 본기의 장점과 단점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제품이다. 손으로 하나하나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 해상력이 장점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이 미니멀리즘 같은 스케일이 단점이다. 또한 뒤메이, 피레스, 왕이 연주한 모차르트의 피아노 3중주곡에서는 섬세함과 단정함이 수준급이라고 할 만했다.

모든 것이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서 시청은 조금 심심했지만 그렇다고 본기가 잘 만들어진 스피커라는 점에 이견을 달 수 없었다. (지동삼)

**깔끔하고 시원한 음색  
상급기의 특성도 담겨**

작고 귀여운 외양에 무척 호감이 간다. 오디오 피직에서 자신 있게 내놓은 스텝 4 스피커, 과연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시청 전부터 무척 호기심이 일었다. 상급한 마음에 우선 솔티경의 지휘로 베토벤의 '에그먼트 서곡'부터 들어보았다. 깨끗하고 깔끔한, 게다가 군더더기 없는 시원한 음



색이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 비록 북셀프형 스피커이지만 그 안에 표현되는 음색과 밸런스는 동사의 상급 기종에서 보여준 특성과 많이 닮았다는 느낌이다.

이번에는 안나 모포의 음성으로 구노의 '파우스트' 중에서 '보석의 노래'를 걸어보았다. 소프라노의 고음이 거슬리지 않고 편안하게 전달된다. 또한 오케스트라와의 매칭도 훌륭하게 표현

되었다. 음악적인 요소는 수준급으로 음질과 음의 밸런스, 그리고 음색에 전혀 불만이 느껴지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황병기의 '침향부'. 가야금 소리와 사이사이 깃들어 있는 침묵이 감칠맛나게 다가온다. 고요한 침묵 속에 울려 퍼지는 가야금 소리는 정말 일품이었다.

대개 일반 애호가들은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나 첼로

모음곡을 성서에 비유할 정도로 높이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가야금이나 아쟁산조는 바흐에 비견되지는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깊은 감동을 준다. 재즈곡으로 야신타가 부른 '오, 대니 보이'를 걸어보았다. 촉촉한 그녀의 음성이 마음을 편하게, 그리고 감미롭게 전달된다. 가격에 비해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지닌 스피커라는 인상을 받았다. (정현성)

- 구성:2웨이 2스피커 ●인클로저:베이스리플렉스형 ●사용유닛:우퍼 15cm 콘형, 트위터 2.5cm 돔형 ●주파수 특성:55Hz~33kHz ●임피던스:4Ω
- 감도:87dB ●크기:W17.5×H32×D24.9cm ●무게:5.5kg ●수입원:다움(02-587-7300)